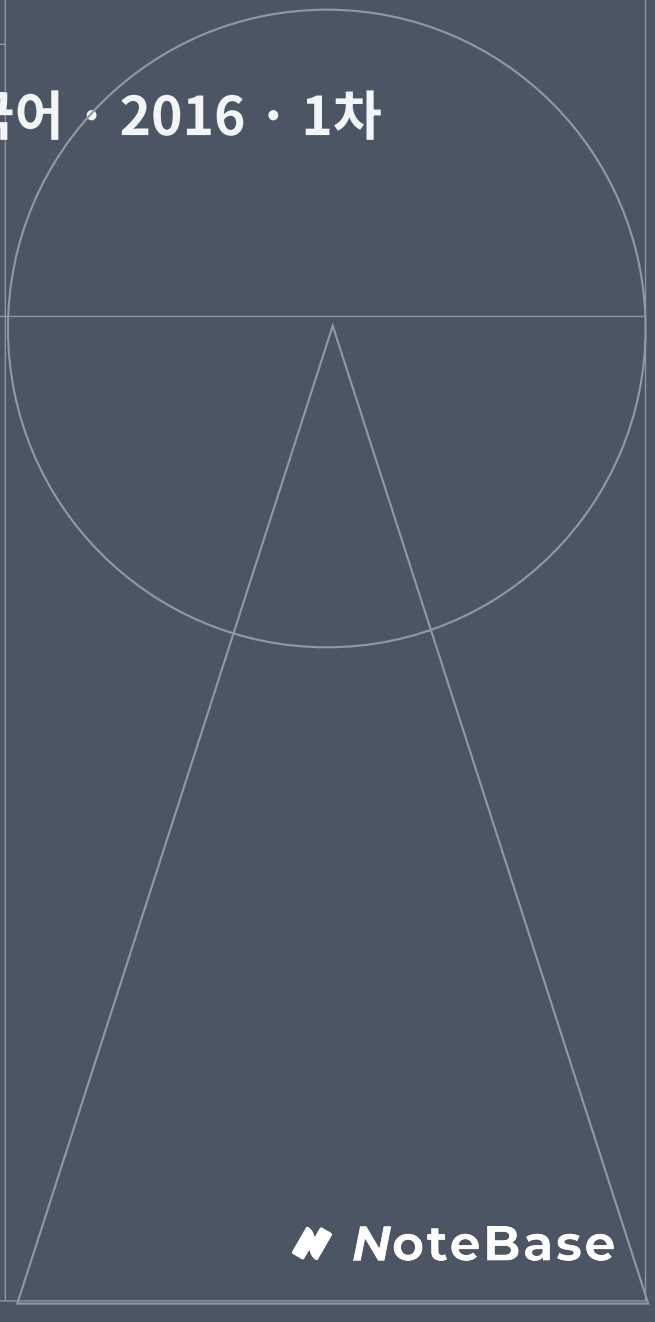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6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6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6 · 1차

문 1. 밑줄 친 낱말의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가) 赫居世王 盖鄕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삼국유사』 권 제1 중에서-

(나)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삼국유사』 권 제2「처용가」 중에서-

① ㉠ : 弗矩內
② ㉡ : 入
③ ㉢ : 可
④ ㉣ : 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의 소리를 빌리는 음차와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빌리는 훈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음차는 한자의 음을 빌려 우리말의 소리를 적는 방식이고, 훈차는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빌려 적는 방식이다. ㉠·㉢·㉣은 음차이고, ㉡은 훈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弗矩內'는 한자의 음인 '불·구·내'를 빌려 고유어 이름을 적은 음차이다. ㉡과 같은 훈차가 아니므로 차용 방식이 다른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은 음차이다'라고 판단한다.

② O
㉡ '入'은 '들 입'의 뜻에 해당하는 우리말 '들-'을 빌려 '밤들이'의 '들-'을 적은 훈차이다. 음을 빌린 나머지 세 예와 차용 방식이 다르다.

③ X
㉢ '可'는 한자의 음 '가'를 빌려 '노니다가'의 '가'를 적은 음차이다. 훈차가 아니므로 차용 방식이 다른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은 음차이다'라고 판단한다.

④ X
㉣ '羅'는 한자의 음 '라'를 빌려 '이어라'의 '라'를 적은 음차이다. 훈차가 아니므로 차용 방식이 다른 예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은 음차이다'라고 판단한다.

오답 포인트

㉡ '入'을 현대 한자음 '입'으로만 보면 음차와 훈차를 혼동하기 쉽다. 이 글자는 한자음 '입'을 적은 것이 아니라 '들다'라는 뜻을 이용해 우리말 '들-'을 적었으므로 훈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기된 한자의 음이 실제 우리말 소리와 대응하면 음차,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우리말로 읽어야 하면 훈차로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可ㅡ가, 羅ㅡ라는 음차이고, 入ㅡ들다는 훈차이다.

암기 포인트

소리를 빌리면 음차, 뜻을 빌려 우리말로 읽으면 훈차이다. '入=들-'은 훈차이다.

NoteBase

문 2.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다.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ㅁ, ㅅ, ㅇ'이다.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라. 종성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게 하였다.
마. 'ㄲ', 'ㄸ', 'ㅃ'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라
④ 나, 다, 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훈민정음의 창제·반포 시기, 초성자와 중성자의 제자 원리, 종성 운용 방식, 병서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나: 초성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뜬 ㄱ, ㄴ, ㅁ, ㅅ, ㅇ의 다섯 글자이다.
다: 중성 기본자 ㆍ, ㅡ, ㅣ는 하늘·땅·사람을 본뜬 것이다.
라: 종성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쓰는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를 따른다.
마: 같은 초성자를 나란히 쓰는 것은 각자병서이고, 서로 다른 초성자를 나란히 쓰는 것은 합용병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 항목은 옳지만 다 항목은 틀렸으며, 틀린 설명인 나와 마도 빠져 있다. '가, 다'가 아니라 '나, 다, 마'가 올바른 조합이다.
② X — 나 항목은 틀렸지만 가와 라 항목은 옳고, 틀린 설명인 다와 마가 빠져 있다. '가, 나, 라'가 아니라 '나, 다, 마'가 올바른 조합이다.
③ X — 나 항목은 틀렸지만 라 항목은 옳고, 틀린 설명인 다와 마가 빠져 있다. '나, 라'가 아니라 '나, 다, 마'가 올바른 조합이다.
④ O — 나 항목은 초성 기본자에 ㄷ을 잘못 넣었고, 다 항목은 중성자의 상형 대상을 조음 기관이라고 잘못 설명했으며, 마 항목은 각자병서를 합용병서라고 잘못 불렀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나, 다, 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초성 기본자와 가획자,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를 바꾸어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특히 ㄷ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한 가획자이고, ㄲ·ㄸ·ㅃ은 같은 글자를 겹쳐 쓰는 각자병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초성은 발음 기관을 본뜬 기본자 다섯 글자, 중성은 천·지·인을 본뜬 기본자 세 글자, 종성은 초성자를 재사용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서는 같은 글자인지 서로 다른 글자인지를 확인하여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초성 기본자 ㄱ·ㄴ·ㅁ·ㅅ·ㅇ, 중성 기본자 ㆍ·ㅡ·ㅣ, 종성부용초성, 같은 글자는 각자병서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음운 변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체 : 부엌 [부억]

② 축약 : 붙여 [부쳐]

③ 탈락 : 담가도 [담가도]

④ 첨가 : 피어도 [피여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 과정에서 음운의 수와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교체·축약·탈락·첨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한 음운이 되는 현상이다.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며,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부엌'의 받침 ㅋ은 음절 끝에서 대표음 ㄱ으로 발음되어 [부억]이 된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므로 교체이다.
② X — '붙여'가 [부쳐]로 발음될 때 ㅌ이 뒤의 반모음의 영향을 받아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축약'이며, 올바르게는 '교체: 붙여[부쳐]'이다.
③ O — '담그-'에 '-아도'가 결합하면 어간의 ㅡ가 없어져 '담가도[담가도]'가 된다. 있던 모음 ㅡ가 사라지므로 탈락이다.
④ O — '피어도'는 [피어도] 외에 [피여도]로도 발음할 수 있다. [피여도]에서는 두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새로 생기므로 첨가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부쳐]가 두 소리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ㅌ이 ㅊ으로 바뀐 구개음화이다. 음운 수가 줄지 않았으므로 축약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음 전후의 음운 수를 먼저 비교한다. 수가 같고 성질만 바뀌면 교체, 수가 줄면서 두 음운이 하나가 되면 축약, 하나가 없어지면 탈락, 하나가 늘어나면 첨가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붙여[부쳐]는 ㅌ이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이므로 교체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어의 자의성 :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② 언어의 역사성 : 언어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③ 언어의 사회성 : 언어 내용과 형식이 일단 한 사회 속에서 약속으로 굳어지면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④ 언어의 분절성 :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언어의 자의성·역사성·사회성·분절성의 뜻을 구별하고, 설명에 제시된 핵심어가 해당 특성과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의성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특성이다. 역사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이다. 사회성은 언어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성이다. 분절성은 연속적인 현실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표현하고, 언어 자체도 음운·형태소·단어 등으로 나뉜다는 특성이다. 언어 단위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한다는 것은 언어의 체계성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같은 대상을 언어마다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듯이,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② O. 언어의 의미나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거나 달라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O. 한 사회에서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약속으로 굳어지면 개인이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 이는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언어의 분절성'이다. 음운·단어·문장·담화와 같은 언어 단위 및 단위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설명은 언어의 체계성에 해당한다. 분절성은 연속적인 현실과 언어를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이다.

오답 포인트

④에는 음운·단어·문장처럼 언어를 이루는 단위가 나열되어 있어 분절성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지의 판단 기준은 단위의 존재가 아니라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표현이며, 이는 체계성의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연적 관계 없음은 자의성,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역사성, 사회적 약속과 개인의 임의 변경 불가는 사회성, 단위로 나뉨은 분절성, 단위들이 규칙적으로 조직되고 결합함은 체계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의성은 필연성 없음, 역사성은 변화, 사회성은 약속, 분절성은 나눔, 체계성은 규칙이다.

NoteBase

문 5. 다음은 한자 성어이다. ( ) 안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적절한 것은?

累卵之( )
口( )腹劍
鯨戰( )死
南( )一夢

① 稅, 蜜, 蝦, 稼
② 勢, 密, 瑕, 柯
③ 勢, 蜜, 蝦, 柯
④ 稅, 密, 瑕, 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자 성어의 정확한 표기와 각 한자의 뜻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累卵之勢(누란지세)는 알을 쌓아 놓은 듯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뜻한다.
口蜜腹劍(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는 태도를 이른다.
鯨戰蝦死(경전하사)는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강한 자들의 다툼에 약한 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이른다.
南柯一夢(남가일몽)은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아래에서 꾼 한바탕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부귀영화를 이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累卵之稅’의 稅(세금 세)와 ‘南稼一夢’의 稼(심을 가)가 틀렸다. 각각 勢(형세 세)와 柯(가지 가)로 고쳐 ‘累卵之勢’, ‘南柯一夢’으로 써야 한다. 蜜과 蝦는 적절하다.

② X
‘口密腹劍’의 密(빽빽할 밀)과 ‘鯨戰瑕死’의 瑕(허물 하)가 틀렸다. 각각 蜜(꿀 밀)과 蝦(새우 하)로 고쳐 ‘口蜜腹劍’, ‘鯨戰蝦死’로 써야 한다. 勢와 柯는 적절하다.

③ O
勢는 ‘형세’, 蜜은 ‘꿀’, 蝦는 ‘새우’, 柯는 ‘가지’를 뜻하므로 ‘累卵之勢, 口蜜腹劍, 鯨戰蝦死, 南柯一夢’이 모두 정확한 표기이다.

④ X
稅, 密, 瑕, 稼가 모두 틀렸다. 올바른 한자는 차례대로 勢, 蜜, 蝦, 柯이며, ‘累卵之勢, 口蜜腹劍, 鯨戰蝦死, 南柯一夢’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한자음이 각각 ‘세·밀·하·가’로 같다는 점을 이용해 뜻이 다른 동음 한자를 섞어 놓았다. 稅와 勢, 密과 蜜, 瑕와 蝦, 稼와 柯를 성어의 의미와 연결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어 전체의 뜻을 먼저 떠올린 뒤 빈칸에 필요한 의미를 확인한다. ‘위태로운 형세-勢, 입의 꿀-蜜, 싸움에 죽는 새우-蝦, 남쪽 가지-柯’의 대응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누란은 勢(형세), 구밀은 蜜(꿀), 경전하사는 蝦(새우), 남가는 柯(가지)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은 것은?

① 맑다 [말따]

② 흙과 [흑꽈]

③ 넓다 [널따]

④ 밟다 [밥☒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겹받침 'ㄺ'과 'ㄼ'이 자음 앞에서 어떤 소리로 발음되는지, 그리고 예외 단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겹받침은 음절 끝이나 자음 앞에서 두 자음 중 하나만 발음된다. 'ㄺ'은 자음 앞에서 원칙적으로 [ㄱ]으로 발음하고, 'ㄼ'은 원칙적으로 [ㄹ]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예외적으로 [밥]으로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맑다'의 겹받침 'ㄺ'은 자음 'ㄷ'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뒤의 'ㄷ'이 된소리가 되므로 [막따]가 맞다. '[말따]'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발음은 '맑다 [막따]'이다.
② O — '흙'의 겹받침 'ㄺ'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과'의 'ㄱ'이 된소리가 되므로 '흙과'는 [흑꽈]로 발음한다.
③ O — '넓다'의 겹받침 'ㄼ'은 [ㄹ]로 발음되고 뒤의 'ㄷ'이 된소리가 되므로 [널따]가 맞다.
④ O — '밟-'은 'ㄼ'을 [ㅂ]으로 발음하는 예외이므로 '밟다'는 [밥☒따]로 발음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맑다'를 [말따]로 읽기 쉬운 것이 핵심 함정이다. '맑다'의 'ㄺ'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소리 나므로 [막따]이고, '밟다'는 'ㄼ'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 [ㅂ]으로 발음하는 예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겹받침 뒤에 자음이 오면 먼저 받침에서 실제로 소리 나는 자음을 정한다. 'ㄺ'은 원칙적으로 [ㄱ], 'ㄼ'은 원칙적으로 [ㄹ]로 판단하되, '밟-'은 [ㅂ]으로 발음하는 예외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맑다·흙과의 'ㄺ'은 [ㄱ], 넓다의 'ㄼ'은 [ㄹ], 밟다는 예외적으로 [ㅂ]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가장 명확한 것은?

①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②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③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④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의 관계, 조사와 접속 표현, 관형어의 수식 범위를 살펴 한 문장이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의문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과'가 접속과 동반의 뜻을 모두 나타내거나, 관형어의 수식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의미가 명확한 문장은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와 수식 범위가 한 가지로만 파악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과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의 두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뜻에 따라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또는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로 고치면 명확하다.

② X
'반장과'의 '과'가 접속을 나타내면 반장과 선생님을 모두 찾아다녔다는 뜻이고, 동반을 나타내면 반장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다녔다는 뜻이 된다. 전자는 '나는 반장과 선생님 두 사람을 찾아다녔다.', 후자는 '나는 반장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다녔다.'로 고치면 명확하다.

③ X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수많은'이 '사람들'을 꾸미는지, '사람들의 노력' 전체를 꾸미는지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이라는 두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전자는 '수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했다.', 후자는 '사람들이 수없이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로 고치면 명확하다.

④ O
주어는 '아버지'이고 비교 대상은 '나를 좋아하는 것'과 '신문을 좋아하는 것'으로 분명하다. 아버지가 나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는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이/가'가 주체뿐 아니라 '보고 싶다'의 대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 ②는 '과'가 접속과 동반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점, ③은 관형어 '수많은'의 수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힌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하나라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체와 대상이 바뀔 가능성, 접속 조사와 동반 부사격 조사의 구별, 관형어의 수식 범위를 차례로 확인한다. 문장을 서로 다른 두 장면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면 중의문이고, 한 장면으로만 해석되면 의미가 명확한 문장이다.

암기 포인트

중의성의 핵심은 주체·대상, 접속·동반, 수식 범위이다.

NoteBase

문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떠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중략>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우리 서클 아이들이 봉산 탈춤 발표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학교 축제의 하나예요."
"그런데?"
민 노인의 물음에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 주셨으면 하구요."
"뭐라구?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 본 적도 없구."
"한두 번만 맞춰 보시면 될 건데요."
"연습까지 하고? 아서라. 더구나 늬 애비가 알면 큰일난다."
"염려 마세요.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다 말해 놨구, 지도 교수의 허락도 받았다구요."
"임마, 그건 너희들끼리 해도 되잖아. 나까지 끌어내지 않아도."
"누가 그걸 모르나요. 자리를 더 좀 빛내 보자 이겁니다."
"나는 무대나 안방에만 앉아 봤지, 넓은 마당에서는 북을 쳐 본 경험이 없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을 안 꺼냈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제 체면도 좀 봐 주셔야죠."
"이 녀석들 보게. 애비는 애비대로 내 북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에, 자식은 또 북으로 체면을 세워 달라니 무슨 조홧 속인지 어지럽다."
"아버지와 저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말도 못 알아듣겠다."
"설명하자면 길구요. 이번 일은 꼭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제딴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씨구. 이 녀석 봐라."

① 손자 '성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② '민 노인'의 아들은 '민 노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한다.

③ '민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

④ 손자 '성규'는 일이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하며 '민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NoteBas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태도 및 설득 방식을 본문의 직접적인 근거와 일치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물의 태도는 대사와 행동에 나타난 의도·감정·가치관을 뜻한다.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인물의 말을 단순히 요약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말했는지와 그 목적이 실현되는 시점을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성규는 할아버지에게 북장단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제 체면도 좀 봐 주셔야죠', '아버지와 저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라고 말한다. 자신의 입장과 체면을 내세워 협조를 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O — 아들은 민 노인이 사람들 앞에서 북을 친 일을 두고 자신의 '체면'과 '면목'이 상했다고 항변하며 아버지를 나무란다. 아버지의 즐거운 기분보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앞세우므로 적절하다.
③ O — 민 노인은 말없이 있는 며느리가 오히려 더 많은 힐난을 보내고 있음을 알고, 아들 내외가 자신이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이해한다. 두 사람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일이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하며'이다. 성규는 발표가 끝난 뒤 주어질 보상이나 혜택을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자신의 체면을 봐 달라고 부탁하고, 발표회에서 북장단을 맡는 일 자체가 할아버지에게 신바람을 낼 기회가 된다고 말하며 설득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신바람 내실 기회'를 미래의 혜택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일이 끝난 후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발표회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에 부여한 의미이다. 설득의 명분과 사후 혜택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에 관한 선지는 대사에서 목적어와 시간 관계를 확인한다. '누구의 체면을 위한 말인지', '혜택이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그 혜택이 행위 중인지 행위 후인지'를 본문 표현과 대조하면 과도한 해석을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성규의 설득은 자신의 체면과 할아버지의 신바람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며, 일이 끝난 뒤의 혜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적절한 한자만 쓰인 것은?

① 이 무기는 辭呈 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補給이 時急하다.

② 사건을 造作한 것이 경찰에 의해 發覺되었다.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濫用한 결과다.

③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면 민속학 事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고적을 答辭해라.

④ 이번 事件에 대해 한국 정부는 有感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斷定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정확한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한자의 음이 같더라도 뜻이 다르면 문맥에 맞는 한자를 써야 한다.

핵심 개념

한자어는 발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장 속 의미와 한자의 뜻을 함께 확인한다.
射程은 탄환 등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辭呈은 사직 의사를 적은 글이다.
踏査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일, 答辭는 상대의 말에 답하여 하는 말이다.
遺憾은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有感은 느낀 바가 있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정 거리'의 '사정'은 탄환 등이 도달하는 거리를 뜻하므로 辭呈이 아니라 射程으로 써야 한다. 補給과 時急은 문맥에 맞다. 틀린 표현 '辭呈 거리' → 올바르게는 '射程 거리'이다.
② O — 造作은 일을 꾸며 만듦, 發覺은 숨겨진 일이 드러남, 濫用은 권리나 권력을 함부로 씀을 뜻하므로 모두 문맥에 맞다.
③ X — 고적을 찾아가 조사한다는 뜻의 '답사'는 答辭가 아니라 踏査이다. 資料와 事典은 문맥에 맞다. 틀린 표현 '고적을 答辭하다' → 올바르게는 '고적을 踏査하다'이다.
④ X — 안타깝고 아쉽다는 뜻의 '유감'은 有感이 아니라 遺憾이다. 事件과 斷定은 문맥에 맞다. 틀린 표현 '有感의 뜻' → 올바르게는 '遺憾의 뜻'이다.

오답 포인트

辭呈·射程, 答辭·踏査, 有感·遺憾처럼 발음이 같은 한자어를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한 글자씩 음만 읽으면 오류를 놓치기 쉽고, '거리·조사·아쉬움'이라는 문맥의 뜻과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한자어를 우리말 뜻으로 바꾼 뒤 각 한자의 뜻이 문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동음이의 한자어는 앞뒤에 결합한 말까지 함께 살핀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무기의 거리는 射程, 현장 조사는 踏査, 아쉬운 마음은 遺憾이다.

NoteBase

문 10.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zigzag 지그재그
㉡ vision 비젼
㉢ leadership 리더쉽
㉣ yellow 옐로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의 규정 표기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는 영어 철자를 한글로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에 정해진 표기를 따른다. 이 문항에서는 zigzag는 '지그재그', vision은 '비전', leadership은 '리더십', yellow는 '옐로'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지그재그'는 맞지만 ㉡ '비젼'이 틀렸으므로 알맞은 것끼리의 짝이 아니다. 틀린 표현 '비젼'은 '비전'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zigzag의 '지그재그'와 ㉣ yellow의 '옐로'가 모두 규정에 맞는 표기이다.

③ X
㉡ '비젼'과 ㉢ '리더쉽'이 모두 틀렸다. '비젼'은 '비전', '리더쉽'은 '리더십'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옐로'는 맞지만 ㉢ '리더쉽'이 틀렸으므로 알맞은 것끼리의 짝이 아니다. 틀린 표현 '리더쉽'은 '리더십'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영어의 실제 발음이나 익숙한 한글 표기에 이끌려 ‘비젼’, ‘리더쉽’으로 쓰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규정 표기를 아는지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을 먼저 규정 표기로 고친 뒤, 두 항목이 모두 맞는 선택지만 고른다. 짝을 묻는 선택지는 한 항목만 틀려도 전체가 틀린다.

암기 포인트

지그재그·비전·리더십·옐로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이 글을 쓸 때 세운 글의 계획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방송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2학년 박○○입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봄기운을 느끼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방송반 동아리 모임에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모임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여쭐 수 있어서 무척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모임에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이나 진로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방송 작가나 방송 제작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실은 대학 진학도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 학교 일로 바쁘시겠지만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 학기 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답장은 편하신 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계절 변화를 환기한 후 안부를 묻는다.
② 선생님께 편지의 용건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③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므로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한다.
④ 선생님께 지난 과거 일을 말씀드리며 실수한 일에 용서를 구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편지에 실제로 나타난 내용과 표현 방식을 근거로 글쓰기 계획을 역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의 계획은 실제 글에 구현된 내용과 표현 방식으로 확인한다. 이 편지는 계절 인사와 안부로 시작하여 진로·진학에 관한 조언을 부탁하고, 선생님을 배려하는 정중한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며 계절 변화를 환기한 뒤 선생님의 안부를 묻고 있다.
② O —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여 편지의 용건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③ O —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란다’, ‘답장은 편하신 때 보내 주시기 바란다’와 같이 선생님께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실수한 일에 용서를 구한다’이다. 지난 동아리 모임을 언급한 것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데 대한 감사와 상담 제안을 떠올리기 위한 것이며, 실수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없다. 올바르게는 ‘지난 모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현재의 진로·진학 고민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글에 과거의 모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만 이용해 이를 ‘과거의 실수에 대한 사과’로 바꾸어 놓았다. 과거 사건의 언급 자체와 그 사건을 언급한 목적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 행동을 본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특히 ‘감사한다’, ‘조언을 구한다’, ‘용서를 구한다’처럼 글쓴이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본문의 실제 의도와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글쓰기 계획은 소재의 등장 여부가 아니라 그 소재를 사용한 목적까지 본문과 일치해야 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영과 나는 소꿉친구다. 나는 수영을 언제부턴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 그래서 내일은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고백할 생각이다.

① 가멸다
② 슬겁다
③ 몽따다
④ 곰삭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제시된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고유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몽따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는 뜻이다. 밑줄 친 부분의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멸다’는 재산이나 살림이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뜻이다. 틀린 표현은 ‘가멸다’이며, 밑줄 친 뜻에 맞는 말은 ‘몽따다’이다.

② X
‘슬겁다’는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는 뜻이다. 틀린 표현은 ‘슬겁다’이며, 밑줄 친 뜻에 맞는 말은 ‘몽따다’이다.

③ O
‘몽따다’는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는 뜻이므로 밑줄 친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곰삭다’는 오래되어 속까지 삭거나 잘 익는다는 뜻이다. 틀린 표현은 ‘곰삭다’이며, 밑줄 친 뜻에 맞는 말은 ‘몽따다’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낯선 고유어라서 어감만으로 고르기 쉽다. 특히 밑줄의 핵심은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전체를 '알면서 모르는 척하다'로 압축한 뒤, 그 뜻을 사전적으로 그대로 가진 단어를 찾는다. 이 의미는 '몽따다'에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몽따다 =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

NoteBase

문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②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가 표현된다.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시다'에 실현된 객체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상대 높임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곧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로 실현된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며 '-(으)시-'나 '계시다'·'잡수시다' 등으로 실현된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춘다.

선지별 해설

① X —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는 상대 높임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밑줄 친 '모시고'가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해야 한다.
② O — 목적어 '할머니'는 주어 '누나'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며, '모시다'는 그 대상을 높이는 특수 어휘이므로 객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③ X —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고 종결 어미로 정도를 표현한다'는 상대 높임법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모시고'가 청자가 아니라 목적어 '할머니'를 높인다고 해야 한다.
④ X — '-(으)시-'와 '계시다'·'잡수시다'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이 문장의 '모시다'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모시다'가 높임의 특수 어휘라는 점만 보고 ④의 주체 높임법과 혼동하기 쉽다. 누구를 높이는지 확인하면, 이 문장에서는 주어인 '누나'가 아니라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인다는 점이 드러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높임 표현이 나오면 높임을 받는 대상의 문장 성분을 먼저 확인한다.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면 객체 높임법, 청자를 종결 어미로 높이거나 낮추면 상대 높임법이다.

암기 포인트

주어는 주체 높임, 목적어·부사어의 대상은 객체 높임, 듣는 이는 상대 높임이다. '할머니를 모시다'는 객체 높임이다.

NoteBase

문 14. 위 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돌하 노피곰 도ᄃᆞ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ᄃᆡ를 드ᄃᆡ욜세라
어긔야 어강됴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논 ᄃᆡ ㉡졈그를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나) 어듸라 더디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사ᄉᆞ미 짒대예 올아셔 해금을 혀거를 ㉣드로라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현실의 삶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④ (가)는 특정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읍사」와 「청산별곡」에 나타난 반복 표현, 화자의 처지와 정서, 기록 방식, 표현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아내의 노래로, 달에게 남편이 가는 길을 밝혀 달라고 기원한다.
(나) 「청산별곡」은 삶의 고통과 비애를 토로하며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공간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고려 가요이다.
감정 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대상도 지닌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고, 감정의 의탁은 자신의 소망이나 정서를 어떤 대상에 기대어 드러내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어긔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를, (나)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를 반복한다. 동일한 후렴의 반복이 운율과 리듬감을 형성한다.
② O — (가)의 화자는 저자에 간 남편이 진 곳을 밟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나)의 화자는 아무런 미움이나 사랑도 없이 돌에 맞아 운다고 하여 까닭 없이 고통받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③ O —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삶을, (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바탕으로 한다. 두 작품은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다.
④ X — (가)는 달에게 남편의 길을 비추어 달라고 기원하며 소망을 의탁하지만, 달도 화자와 같은 감정을 지닌 것처럼 표현한 감정 이입은 아니다. (나)도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로 정서를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가)는 달에게 소망을 의탁하여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나)는 뜻밖의 고통을 토로하고 바다에서 살고 싶은 소망과 비현실적 장면을 제시하여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달을 향해 말을 건다는 이유만으로 감정 이입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데 있다. 대상에게 말을 걸거나 소망을 비는 것은 의인화나 감정의 의탁이 될 수 있지만, 대상이 화자와 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감정 이입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의 표현법을 판단할 때에는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대신 나타내는지, 화자가 그 대상에게 말을 걸거나 소망을 맡길 뿐인지 구분한다. 반복되는 후렴은 내용보다 운율 형성과 연의 구분에 기여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정읍사」는 달에게 남편의 안전을 비는 노래이고, 「청산별곡」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다. 달에 대한 기원은 곧바로 감정 이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돌하 노피곰 도ᄃᆞ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ᄃᆡ를 드ᄃᆡ욜세라
어긔야 어강됴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논 ᄃᆡ ㉡졈그를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나) 어듸라 더디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사ᄉᆞ미 짒대예 올아셔 해금을 혀거를 ㉣드로라

① ㉠ 머리곰 : '멀리멀리'의 의미로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 점그를셰라 : '저물까 두렵다'의 의미로서 야간에 남편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③ ㉢ 믜리도 괴리도 없이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의 의미로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④ ㉣ 드로라 : '듣는가'의 의미로서 비록 홀로 있지만 사랑하는 임과 함께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 시가의 어휘를 현대어로 정확히 풀이하고, 그 표현에 담긴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문맥에 맞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전 시가의 어휘는 현대어 뜻만 맞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술형·의문형과 같은 문장 종결의 성격 및 앞뒤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드로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화자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머리곰’은 ‘멀리멀리’라는 뜻이다. 달이 높이 떠 멀리까지 비추기를 바라는 말로, 길을 떠난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한다.

② O
‘점그를셰라’는 ‘저물까 두렵다’라는 뜻이다. 날이 저물어 남편이 밤길에서 위험을 당할까 염려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③ O
‘믜리도 괴리도 없이’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라는 뜻이다. 누구에게서 날아온 것인지도 모르는 돌을 맞아 우는 상황과 결합하여, 의지할 대상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드러낸다.

④ X
틀린 표현은 ‘듣는가’와 ‘사랑하는 임과 함께’이다. ‘드로라’는 ‘듣는가’라는 의문이 아니라 ‘들었다’ 또는 ‘듣노라’라는 진술의 뜻이다. 또한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함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켜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를 자신이 들었다고 말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드로라’를 현대어 ‘듣는가’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바꾸고, 작품에 없는 ‘사랑하는 임과 함께’라는 상황까지 덧붙였다. 고어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문형으로 해석하면 문장의 종결 의미와 화자의 처지를 모두 잘못 파악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고어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확정한 뒤, 문장 종결이 진술인지 의문인지 확인하고, 선지에 원문에 없는 인물 관계나 상황이 추가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머리곰’은 멀리멀리, ‘점그를셰라’는 저물까 두렵다, ‘믜리도 괴리도 없이’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드로라’는 들었다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녀뿐이다.

②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책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아라.

③ 우리는 어릴 망정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지금까지 애쓴 만큼 강팀들도 이길 수 있다.

④ 철수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사장님에게 혼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와 조사, 어미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지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여 쓰며, '-ㄹ망정'은 하나의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과 띄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떠난 지'처럼 띄어 쓴다. '뿐'은 체언 '그녀' 뒤에 붙은 조사이므로 '그녀뿐이다'가 맞다.
② O — '대로'는 체언 '법' 뒤에서 그 방식이나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법대로'처럼 붙여 쓴다. '찾아보다'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고 살피다'라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찾아보아라'가 맞다.
③ X — 틀린 표현은 '어릴 망정'이다. '-ㄹ망정'은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의 사실과 대조하는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어릴망정'이라고 써야 한다. '만큼'은 관형형 '애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애쓴 만큼'처럼 띄어 쓴다.
④ O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깨뜨려 버렸다'가 맞다. '-기는커녕'은 앞말에 붙여 '혼나기는커녕'으로 쓰고, 조사 '까지'도 체언 '칭찬'에 붙여 '칭찬까지'로 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망정'을 의존 명사처럼 보아 띄기 쉽지만, '-ㄹ망정' 전체가 연결 어미이다. 반대로 같은 문장에 있는 '만큼'은 관형형 뒤에 놓인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먼저 판별한다. 의존 명사는 띄고, 조사와 어미는 붙인다. 특히 양보·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ㄹ망정'은 하나의 어미로 처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떠난 지·애쓴 만큼’은 띄고, ‘그녀뿐·법대로·어릴망정’은 붙인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것은?

①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② 재물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렸다.

④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절을 문장 속 성분으로 안은 문장과 연결 어미로 절을 이어 만든 문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은문장은 한 절이 명사절·관형절·부사절·서술절·인용절의 구실을 하며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간 문장이다.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이다. 1번은 관형절을, 2번과 3번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지만 4번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는데도'로 두 절이 이어진 문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꽃이 피는'이 관형절이 되어 뒤의 명사 '봄'을 꾸미므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구성상 다른 문장이 아니며, 올바르게 분류하면 안은문장이다.
② X — '재물을 보기'가 명사형 어미 '-기'를 통해 명사절이 되고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돌같이'는 절이 아니라 부사어이므로, 올바르게 분류하면 안은문장이다.
③ X —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이 명사형 어미 '-음'을 통해 명사절이 되고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구성상 다른 문장이 아니며, 올바르게 분류하면 안은문장이다.
④ O —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와 '건강이 안 좋다'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는데도'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1~3번과 달리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포인트

2번의 '돌같이'에만 주목하여 부사절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돌같이'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없으므로 절이 아니며, 2번의 안긴절은 '재물을 보기'이다. 또한 4번의 '하는데도'를 관형사형처럼 보아 안은문장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여기서 '-는데도'는 앞뒤 절을 연결하는 어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부분을 찾는다. 그중 한 절이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은문장이고, 두 절이 '-는데도' 같은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으면 이어진문장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는+명사’는 관형절, ‘-기/-(으)ㅁ+조사’는 명사절, ‘-는데도’로 앞뒤 절을 잇는 구조는 이어진문장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① 어제 만났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② 군대에 가는 민수는 후배들에게 책을 주었다.

③ 배가 많이 고팠던 철수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④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서술어가 문장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의 수인 서술어의 자릿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 서술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이다.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등 한 성분을 더 요구한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두 성분을 더 요구한다. 수식어처럼 생략해도 기본 의미가 성립하는 부속 성분은 자릿수에 넣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아니다'는 '그는'이라는 주어와 '선생님이'라는 보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어제 만났던'은 '그'를 꾸미는 관형절이므로 자릿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판단은 '아니다'를 다른 자릿수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③·④와 같은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O — '주었다'는 '민수는'이라는 주어, '후배들에게'라는 부사어, '책을'이라는 목적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세 성분이 있어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가 완성되므로 나머지 선지와 자릿수가 다르다.
③ X — '먹었다'는 '철수는'이라는 주어와 '라면을'이라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맛있게'는 동작을 꾸미는 부사어이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틀린 판단은 '맛있게'를 자릿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먹었다'를 두 자리 서술어로 본다.
④ X — '읽는다'는 '학생들이'라는 주어와 '책을'이라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도서관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이지만 이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으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틀린 판단은 장소 부사어까지 자릿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읽는다'를 두 자리 서술어로 본다.

오답 포인트

문장에 실제로 나타난 성분을 모두 세면 ③의 '맛있게'나 ④의 '도서관에서'까지 포함하기 쉽다. 자릿수는 겉으로 드러난 성분의 개수가 아니라 서술어가 의미상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어를 중심으로 '누가·무엇이',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이' 가운데 의미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만 남긴다. '주다'처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의 세 요소가 필요한 서술어는 세 자리이고, 생략 가능한 시간·장소·방식의 수식어는 세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주다'는 누가·누구에게·무엇을의 세 자리, '아니다·먹다·읽다'는 이 문장에서 두 자리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사이시옷 표기가 된 합성어의 예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① ㉠: 귓병, ㉡: 귓밥

② ㉠: 냇가, ㉡: 뱃길

③ ㉠: 자릿세, ㉡: 전셋집

④ ㉠: 아랫집, ㉡: 아랫방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이시옷을 적은 합성어를 앞말과 뒷말의 어종에 따라 '순우리말+순우리말'과 '순우리말+한자어'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순우리말끼리의 합성어이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이다. '아랫집'은 '아래+집'으로 두 말이 모두 순우리말이고, '아랫방'은 순우리말 '아래'와 한자어 '방(房)'이 결합한 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귓병’은 순우리말 ‘귀’와 한자어 ‘병(病)’의 결합이므로 ㉡의 예이고, ‘귓밥’은 순우리말 ‘귀+밥’의 결합이므로 ㉠의 예이다. 두 예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 ‘귓밥’, ㉡ ‘귓병’이다.
② X — ‘냇가’는 순우리말 ‘내+가’의 결합이므로 ㉠의 예가 맞다. 그러나 ‘뱃길’도 순우리말 ‘배+길’의 결합이므로 ㉡이 아니라 ㉠의 예이다. 올바르게는 ㉡에 ‘아랫방’과 같은 순우리말+한자어 합성어가 와야 한다.
③ X — ‘자릿세’는 순우리말 ‘자리’와 한자어 ‘세(貰)’의 결합이므로 ㉠이 아니라 ㉡의 예이다. ‘전셋집’은 한자어 ‘전세(傳貰)’와 순우리말 ‘집’의 결합이므로 ㉡의 예가 맞다. 올바르게는 ㉠에 ‘아랫집’과 같은 순우리말끼리의 합성어가 와야 한다.
④ O — ‘아랫집’은 순우리말 ‘아래+집’의 결합이므로 ㉠에 해당하고, ‘아랫방’은 순우리말 ‘아래’와 한자어 ‘방(房)’의 결합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사이시옷이 실제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특히 ‘귓병·귓밥’은 겉모양이 비슷하지만 ‘병(病)’은 한자어이고 ‘밥’은 순우리말이므로 분류가 서로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이시옷 앞뒤의 말을 원래 형태로 나눈 뒤 각 말이 순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판별한다. 두 말이 모두 순우리말이면 ㉠, 하나가 순우리말이고 다른 하나가 한자어이면 ㉡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아랫집은 ‘아래+집’이라 순우리말끼리, 아랫방은 ‘아래+房’이라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識字憂患
㉡ 角者無齒
㉢ 螳螂拒轍
㉣ 得隴望蜀

① ㉠ 아는 것이 병이다.
② ㉡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③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④ ㉣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자 성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어가 비유하는 상황과 속담의 의미가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識字憂患(식자우환)은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角者無齒(각자무치)는 뿔이 있는 짐승은 날카로운 이가 없다는 말로, 한 사람이 모든 장점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螳螂拒轍(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말로, 제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덤비는 무모함을 뜻한다. 得隴望蜀(득롱망촉)은 농을 얻고도 촉을 바란다는 말로, 욕심이 끝없이 커지는 상황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識字憂患은 아는 것이 도리어 걱정거리가 된다는 뜻이므로 '아는 것이 병이다'와 의미가 통한다.
② O — 角者無齒는 뿔이 있는 짐승에게 날카로운 이까지 있지는 않다는 뜻이므로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즉 모든 장점을 한꺼번에 갖추기는 어렵다는 속담과 통한다.
③ O — 螳螂拒轍은 약한 사마귀가 제 힘을 모르고 수레를 막아서는 무모함을 나타내므로, 경험이 없어 두려운 줄 모르고 덤빈다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와 의미가 통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得隴望蜀을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와 대응시킨 것이다. 이 속담은 세상일의 형편이 돌고 돌아 바뀐다는 뜻이다. 得隴望蜀은 하나를 얻고도 또 다른 것을 바라는 끝없는 욕심을 뜻하므로, 올바르게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와 같은 속담에 대응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두 표현은 모두 상황이 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변화의 방향이 다르다.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는 처지의 전환을, 得隴望蜀은 소유가 늘수록 욕심도 커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의 표면적 장면을 먼저 풀고 그 장면이 가리키는 중심 의미를 한 단어로 압축한 뒤 속담과 대응한다.
得隴望蜀은 '처지 변화'가 아니라 '끝없는 욕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식자우환은 앎의 근심, 각자무치는 장점의 양립 불가, 당랑거철은 무모한 대항, 득롱망촉은 끝없는 욕심이다.

NoteBase